

꽁꽁 얼린 북극한파, 뒤끝도 길다

제트기류 느껴져 한반도 직격...지구 온난화 영향도 작용 광주·전남, 당분간 최저기온 영하권...기습한파 패턴 반복될 듯

24일 광주지역 체감 기온이 영하 11도를 기록하고 낮 최고기온도 영하 1도에 머무르는 등 연일 광주·전남이 꽁꽁 얼어 붙고 있다.

광주·전남에 닥친 기습 강추위는 25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주말에는 평년 기온(최저기온 영하 6~영하1도, 최고기온 4~7도)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5일 광주·전남 아침최저기온은 영하8~영하1도, 낮 최고기온은 1~5도를 보이겠다. 26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6~영하1도대에 분포하고 낮 최고기온은 5~9도까지 오르겠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을 얼어 붙게 만든 한기의 원인은 중국 북부에서 내려오는 찬 시베리아 대륙고기압의 확장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년 중 해가 가장 짧은 동지(冬至)에서 3주 정도 지난 소한(小寒·1월 6일)이 가장 춥고 대한(大寒·1월 20일)이 지나면 추위가 서서히 풀리게 전형적인 겨울패턴이었다.

하지만 기온이 차츰 올라야 할 시기에 광주·전남의 기온이 연일 푹 떨어졌다. 그 원인은 시베리아 고기압보다 위에 있는 북극 한파가 영향을 끼쳤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극한파는 보통 상층부에 맴도는 제트기류에 갇혀 확장을 못하지만, 이번 한파에는 상층부 제트 기류가 느슨해져 북극한파가 연일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제트기류가 약해진 이유로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라는 분석을 내놓는 전문가들이 많다.

지난해 12월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엘니뇨'(열대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현상)가 정점을 찍은 것도 영향으로 꼽힌다.

온난화로 따뜻해진 바다의 열기로 북극의 대기가 따뜻해지면서 제트기류가 약화했다는 것이다.

또 찬 공기는 지표로 가라앉기 때문에 체감 기온을 더 떨어뜨린다.

22일부터 24일까지 광주·전남에 최고 26cm의

폭설이 내린 것도 같은 원인으로 꼽힌다. 대륙의 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안 대기과 만나 많은 수증기를 포함한 눈 구름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기상청은 24일 정오를 기해 광주와 나주·장성·강진·해남·완도·영암·무안·함평·영광·목포·신안에 발효된 대설주의보를 해제했다.

다만 25일 새벽 일부 지역에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다.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1cm미만의 눈이 내리겠다.

이번 추위는 25일 아침까지 계속되다가, 낮부터 한반도가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해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평년기온을 회복한다고 해도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권을 유지하면서 날이 풀리는 속도는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앞으로 광주·전남에 기습한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면역력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활동 자제하는 등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교육청, 유아 심리 상담 서비스

만 5세 유아 7000명에 '우리 아이 마음 행복 키움' 운영

광주시교육청이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유아 대상 심리·정서 발달 지원 사업인 '2024 우리 아이 마음 행복 키움'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우리 아이 마음 행복 키움' 서비스는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추구를 지원하기 위한 이점선 교육감 공약사업 중 하나이다.

시교육청은 국·공립유치원 만 5세 유아 7000여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관심군' 유아를 선별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심군' 유아 대상 상담뿐만 아니라 해당 유아

의 학부모 상담을 비롯해 가정 내 양육 태도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지난해 만 5세 588명의 유아 대상으로 발달 검사를 실시해 이 중 4.3%인 25명의 유아를 '관심군'으로 선별해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했다.

참여 학부모들은 사후 설문에서 81.8%의 만족도를 보였다.

이점선 교육감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유아들의 삶을 지원하고 행복을 키워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남구 어르신 가구 가스안전 차단기 보급

65세 이상 125가구 대상 저소득층에 우선 지원

광주시 남구가 어르신 가구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안전 차단기 보급에 나선다.

남구는 1000만원을 투입해 소외계층 어르신 가구 가스 안전 차단기(타이머 록)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스안전 차단기는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에 도달하면 가스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안전장치다. 어르신들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고 외출하면 작동해 과열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보급 대상은 남구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이며 우선 순위에 따라 총 125가구에 가스안전 차단기를 지원한다. 1순위 지원 대상은 지난해 보급 사업 신청 뒤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이며 2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장애인·기초연금수급자·일반 가구다.

접수 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5·18 현장 담은 사진 655점 AI로 생생하게 복원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사진집 발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복원추진단)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진 자료 655장을 수록한 사진집을 발간했다.

복원추진단은 24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에서 '사진으로 확인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 출판 보고회를 개최했다. 자료집에는 복원추진단이 지난 4년 동안 광주일보를 비롯한 국내외 언론과 일반인 등으로부터 구입 및 기증받은 사진 자료 1만 5444장 중 655장이 수록됐다.

복원추진단은 사진을 고화질로 스캔해 노이즈를 제거하고,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고도화 작업을 하는 등 정제 작업을 거쳤다고 밝혔다.

복원추진단은 타임즈 기자로서 5·18 당시 광주를 찾았던 로빈 모이어의 사진 자료 343장을 확보했으며, 이 중 50여장을 자료집에 수록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개인이 발간해 온 일부 5·18 관련 사진 자료집에서 나온 촬영날짜, 장소, 촬영자 등 오류를 수정해 수록했다고도 밝혔다. 당초 민족민주화성회 후 시가행진을 찍은 사진이라고 알려진 사진을 전남대병원 영안실로 수정하는 등 오류를 고쳤다는 것이 복원추진단 설명이다.

복원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종합 사진 자료집이 5·18의 역사적 가치와 민주화운동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 계엄군의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에 앞선 오전 10시44분, 광주 금남로에 출동한 장갑차에 딸린 기관총에 실탄이 장착된 사진. 광주일보가 제공한 이 사진은 실탄을 장착한 기관총을 포착해 계엄군이 조직적으로 실탄을 사진에 분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다.

"5·18 편취" 허식, 인천시의장직 박탈 환영

5·18 기념재단 성명...왜곡 인쇄물 동료 의원에 배포해 논란

5·18기념재단이 최근 인천시의회가 5·18민주화운동을 편취한 특정언론사의 인쇄물을 배포한 허식 인천시의장의 의장직을 박탈한 데 대해 환영한다. 입장을 밝혔다.

5·18기념재단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의회의 5·18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중대한 정치적 결단을 통해 이루어진 허식 의원의 의장직 박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2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을 가결했다.

허 의장은 지난 2일 5·18을 왜곡·편취한 특정언론사의 '5·18 특별판' 인쇄물을 동료 의원 40명에게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다.

총 40면으로 제작된 신문 형태의 인쇄물에는

'5·18은 DJ세력·北이 주도한 내란' 등 5·18 민주화운동을 편취하는 내용이 담겼다.

5·18기념재단은 "허 의장은 소속 당인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기 직전 탈당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염치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그러나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허 의장을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인천시의원들이 규탄대회를 여는 등 사퇴요구가 거세게 일어나면서 결국 의장직 상실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5·18 왜곡·편취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를 한 인천 지역사회에 경의를 표한다"며 "5·18기념재단은 반복되는 5·18의 왜곡·편취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